



양록축협, 가공제품 판매계약 물의

- (주)골든벨 양록축협 명칭·로고 사용 방문판매, 조합 명예훼손 -

한국양록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전병설)과 가공제품 판매회사인 (주)골든벨과의 계약이 허술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20일 양록축협의 2001년 임시총회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실시된 간담회에서 조합 이우성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계약한 (주)골든벨이 온갖 불법을 자행, 조합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성 이사에 따르면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한 (주)골든벨이 저가 저질 양록제품을 생산, 양록축협 명칭·로고·전화번호 등을 방문판매시 사용하고 조합직원을 사칭함에 따라 조합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반품 및 취소 등의 소비자 민원이 조합 경제부로 집중되는 탓에 조합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골든벨이 지정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생산했으며 최초 계약 물량인 9천 박스를 넘어 1만9천 박스 이상을 제조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조합이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설 조합장은 “가공제품 판매계약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기에 이사회에 보고만 취했다”고 밝히고 “계약이 미흡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골든벨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고물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백두대간 재고 3만8천 박스 전량을 인수한다는 조건을 (주)골든벨이 제시했고 이에 계약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홈쇼핑이나 케이블 TV를 통해 판매키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방문판매를 실시한 (주)골든벨과 계약파기를 통보한 상태이며 지정가공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조합 이선희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재고자산 백두대간을 처분키 위해 (주)골든벨과 계약한 것은 인정하지만 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주)골든벨의 발주량 무시, 조합직원 사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려 했으나 자문 결과 실효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날 책임을 질타하는 대의원들에게 전병설 조합장은 1월 중 예정된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국양록**

